

하느님께 영광~!!



[2024년 03월 28일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

1. 2023년 10월 07일에 발생한 하마스 테러로 인해, 2스라엘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 6개월 남짓 전쟁 중입니다. 2스라엘 남쪽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전쟁이 북쪽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드나드는 민간 상선들을 공격하기까지 했고, 2024년 04월 15일 새벽, 이란이 2스라엘을 향해 200~300여발의 드론, 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어찌 훌러가던 우리는 예*슈아가 정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 당사자들인 2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레바논, 예멘 그리고 이란은 예수*아를 모르거나 반대하거나 적대시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는 국가들입니다. 우리의 그ㄷ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a. 오직 예*슈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 b. 무함마드가 아니라 예*슈아가 참 선지자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께서라는 것을 무슬림들(팔레스타인, 레바논, 예멘, 그리고 이란)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 c. 전쟁은 참 안타까운 사태지만,
 하느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이 전쟁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바가 이뤄지도록,
 하느님의 뜻 곧 인류 구원을 위한 뉘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돕는 그ㄷ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현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현역병 중심이 아니라 특수부대 출신의 예비군 중심 편제입니다. 즉, 경험 많고 노련한 예비역을 동원하여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스라엘 내 곳곳에서 테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경지대 뿐만 아니라 도시 한복판 주택가와 대로변에서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계 아랍인 이스*라엘 시민권자 약 200만 명과 유대인 약 700만 명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수상은 이 전쟁과 갈등을 장기화하여 자신의 집권 기간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장기집권을 위해 자신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장기집권하려는 이유는 바로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면 현재 수상인 네탄냐후가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갈 것이라고 합니다.

- a. 이스*라엘 정부 각처에 ✞ 님을 두려워하는 청백리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 b. 공의가 물 같이, 정의가 강 같이 이스*라엘에 흐르도록, 돋는 그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 청사 내 – 2023년 10월 07일 납치된 사람들]



3. 무료 급식소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원 봉사자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마약치유센터에 입소한 형제들이 무료 급식소에 가져갈 밥과 찬을 만들고, 운반하고, 배식하고, 마무리 청소까지 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류들과 신발도 기증을 받아 나눠주고 있습니다. 리더 싸샤 형제가 아내 스비에타 자매와 함께 무료 급식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는 길거리 마약 중독자들과 노숙자들과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만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접점'인데요,

- 무료 급식소를 통해 '빵'과 '냠음'이 함께 전달되도록,
- 스텝이 중요한데요,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노숙자들을 만나며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며 냠음을 녹여낼 노련한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도록,
- 배식에 필요한 식료품들이 채워지도록, 돋는 그릇 부탁드립니다.

4. 마약치유센터 역시 계속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약치유센터에서 리더 싸샤 형제가 아내 스비에타 자매와 함께 중독자 형제들 열 명과 숙식을 같이하며 돌보고 있는데요, 부리더로 툴릭 형제가 돋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통해 중독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마약치유센터에 입소시킵니다. 이 센터는 단독주택 한 채를 빌려 운영하고 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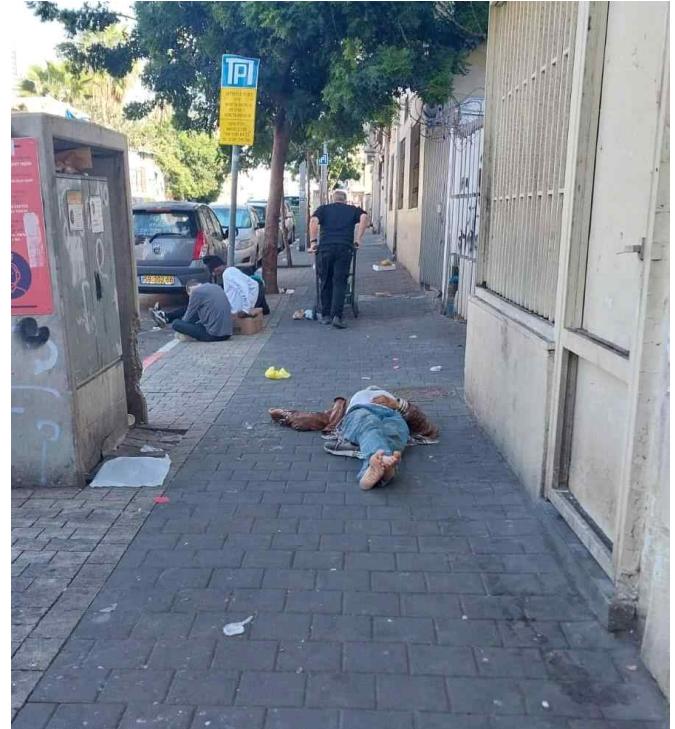


9개월 동안 합숙생활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외출이 제한됩니다. 대신 숙식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고물가 국가, 그곳에서도 고물가 지역인 텔-아비브 city에 무료 마약치유센터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스라에이 제사장 나라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아의 말씀 곧 뉘음을 전하는 최전선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a. 마약치유센터가 추구하는 목적은 0훈9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0훈9원으로만 태어납니다. 0훈9원으로 백성이 태어나고, 백성이 태어나니 하나님 나라가 커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충만하려면 결국 백성이 늘어나야 합니다. 마약치유센터를 통해 0훈9원이 지속되도록,
- b.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마약치유센터 리더 싸샤와 스비에타 부부가 중독자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도록,
- c. 부리더 툴릭이 대부분의 식사준비 등등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 d. 자원봉사자들과 중독프로그램 수료자 등등이 마약치유센터에 방문하여 대화, 그 모임, o 배, 시경공부하고 있는데, 시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개입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 e. 마약/술/담배의 금단현상을 잘 극복하고, 금단현상 이후 유혹을 잘 물리치도록,
- f. 중독에 다시 빠지지 않으려면 9개월 프로그램 수료 후가 중요한데, 그 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돋는 그 부탁드립니다.



5. 그는 자립을 기대할 수 있지만, 무료 급식소와 마약치유센터는 태생적으로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산실인 무료 급식소, 마약치유센터 사*역은 그러므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a.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사람' 곧 '하람'(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 120명 세워지도록,

b. 12개 후원 그자가 1년에 한 달치 월세 및 운영비를 매년 계속해서 감당한다면
무료급식소와 마약치유센터를 통한 그개척 곧 0원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12개 후원 그자가 세워지도록, 돋는 그드 부탁드립니다.

6. 2024년 03월 30일에 2스라엘 성직자 비자 발급 대상을 선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실무자를 만나려 했습니다. 이미 서류를 제출했고, 4역 포트폴리오도 보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비전을 소통하는 시간이기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를,
2스라엘에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가정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무자에게 상황이 생겼고, 주변 상황도 여의찮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당분간 신규 성직자 발급할 계획이 없다는 구체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의지도 직/간접적으로 분명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직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돋는 그드 부탁드립니다.



[나자렛 교*회 주중 기*도회]

7. 우리가 만나는 유드인 지체들은 러시아어가 모국어이고, ○배 언어입니다. 마음의 언어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즐겁게 배우는 만큼 머릿속에도 채워지도록, 돋는 그드 부탁드립니다.



[리손 레-찌온 교*회 안식일 예*배]

8. 2024년 03월 27일부터 04월 05일까지 우리 부부는 이스*라엘 사*역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부재했던 9개월 동안에도, 세워진 리더들이 성실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심양면 돋는 그드와 후원으로 동역해주신 '하람 120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스라el 김 영현, 황 혜영 배상



계좌번호와 가족사진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GP 선*교*회 공식 후원계좌] KEB 하나은행 990-090819-590 예금주 김 영현. 황 혜영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승선했던 옵바 항구에서]

이-메일 solideo0691@daum.net / 한국 인터넷 전화 070-4670-2414 / 카톡 ID : solideo0691



추신. 다음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전에 나눴던 2스라él 선*교 상황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gpinternational.org/?_filter=search&act=&vid=&mid=gp_story&category=&search_keyword=%EA%B9%80%EC%98%81%ED%98%84&search_target=user_name